



### 기장미역과 멸치회로 유명한 '대변항'

대변항은 부산과 경주 감포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어항이다. 이미 기장미역과 멸치회로 소문난 항구. 봄철이면 멸치 축제로 불야성을 이루는 이름난 항구다.

멸치철이 지난 대변항의 겨울은 한갓지다. 여행 시작은 대변항의 등대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시작하면 된다. 방파제 끝에 매달려 있는 등대 불빛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멀리 바닷속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른 아침 조업을 나가는 배들로 잠시 항구가 부산해지면서 끼룩거리며 찾아드는 갈매기떼. 동해 어느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활처럼 등

글게 흰 자그마한 포구는 어느 곳보다 생동감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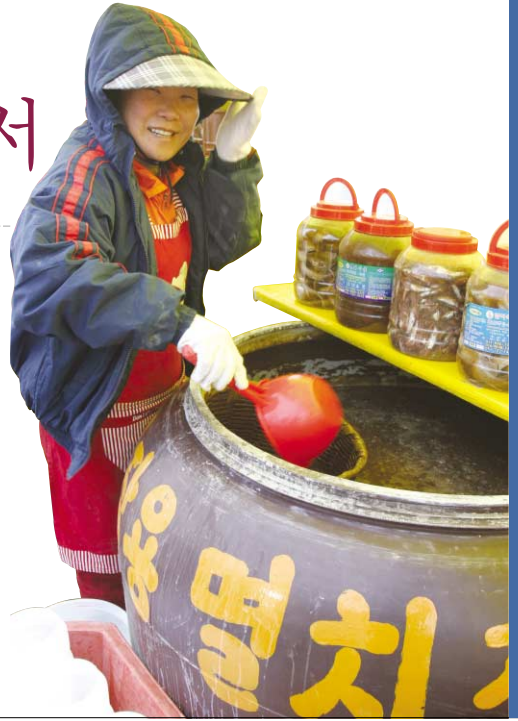
동이 트면 바닷가 난전도 활기를 찾는다. 기장의 특산물인 멸치젓, 건어물, 싱싱한 횡감을 파는 아낙들이 난전을 펼치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부여잡는다. 봄철 대변항의 멸치축제가 아니더라도, 널브러진 특산물에서도 멸치 고장임을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 대변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죽성리 월전마을까지 잇는 3.5km의 해안 길. 해안길 초입, 난전을 지나고 등대 방파제를 꺾어 돌아서 동쪽 방파제를 마주하는 바닷가 앞에서 영화 '친구' 촬영지 팻말을 만나게 된다. 워낙 인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1월,

# 물안개 속에 녹아든 추억과 낭만을 찾아서

끼룩거리는 갈매기떼, 백사장 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흰 파도,  
옥빛보다 더 맑은 쪽빛 바닷물이 넘실대는 남해와 동해의 푸른 물결을  
감싸고 있는 부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장군의  
대변항-해동 용궁사-수산전시관-송정해수욕장-달맞이 공원-해운대를  
잇는 해안길은 1월의 최상 겨울 해변 드라이브길이다.



기를 끌었던 영화여서 특별하지 않은 바닷가에  
눈길이 고정된다.

2차선 해안길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넘실거리는 파도 길을 연출하고 있다. 맑은 햇살 덕분에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잠시 바다로 내려가 겨울 바다에 한껏 취하는 사람, 낚시객들을 간간히 만난다.

그렇게 해안길은 월전마을에서 잠시 숨을 멈춘다. 이곳은 고산 윤선도가 7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시 6편을 남긴 두호마을과 인접해 있다. 주변 황학대는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울려 절경을 자랑한다. 윤선도가 유배생활을 할 때 죽성리 백사장 건너에 있는 송도를 황학대라 이름짓

고 매일 이 곳을 찾아 한을 삭였다고 한다.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 '용궁사'**  
이내 대변항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국립수산과학원(051-720-2114) 진입로를 만나게 되고, 내려가면 해동 용궁사(051-722-7744) 가는 길과 맞닥뜨린다. 지도상에는 '시랑대' 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곳, 바다 끝자락에 제법 거대한 사찰이 들어 앉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절이리는데 신도들이 눈에 띄게 많다. 예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소원 하나가 이뤄진다는 말 때문일런지.

절집 입구에 세워진 12간지의 동물 앞에서 동



- ① 해동 용궁사
- ② 포대화상
- ③ 달맞이 동산에서 보는 일출

전 100원씩 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 절집 들어가는 초입에 넉넉한 웃음을 띄고 있는 포대화상의 튀어나온 배를 만지는 사람들. 배와 코를 만지면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이야기 덕분에 ‘포대’의 배와 코는 새까맣게 변색되었다. 그 외에도 시험 합격을 도와주는 동자승 등.

이런 저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용궁사는 동해를 한눈에 정원으로 삼고 있는 아름다운 절집이다. 용궁사는 고려 우왕때 나옹화상이 처음으로 창건을 했다고 전한다. 원래 겨울에도 칙꽃이 피었을 정도로 영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불상을 모시려고 땅을 파니 땅 속에서 거북바위가 나와 그 위에 좌대를 앉히고 불상을 모신 것이 지금의 용궁사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용궁사 경내에는 특별한 국보급 문화재는

없다. 부분적으로 불사 중이라 어수선하기도 하다. 그래도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절집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일이다.

이어 기장은 해운대구로 바뀌면서 송정해수욕장과 만난다. 죽도공원의 송림숲을 따라 가면 일송정이라는 정자를 만나고, 바다를 장식하는 기암이 펼쳐진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물론이고 야경 또한 멋지다. 겨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뜨겁기만 하다.

송정을 지나 달맞이 공원을 찾는 동안 청사포가 발아래로 펼쳐진다. 수령 350년의 망부송과 그 곁에 있는 망부암이 유명하며, 울창한 송림과 더불어 경관이 수려하다. 지명의 유래는 ‘골

## 여행정보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busan.go.kr> 부산시청  
<http://tour.gijang.go.kr> 기장군청 문화관광

문의 전화 : (051)888-3501 부산시청 관광진흥과  
(051)888-3527 부산시청관광안내소

### 대중 교통정보

- 부산지역에서 좌석버스로 해운대까지 와서 해운대역 앞 버스터미널에서 대변행 시내버스를 이용
- 기장읍내에서 대변행을 거쳐 서암포구, 수산과학관, 용궁사, 해운대를 잇는 시내버스 수시 운행

### 자가 운전정보

- 경부고속도로-구서 나들목-반여동에서 기장방면으로 난 14번 국도 이용-대변항
- 죽성리는 대변방파제를 지나 해변길을 따라 가면 나옴
- 용궁사-송정-달맞이 동산-해운대는 대변항에서 31번 지방도 이용, 남쪽으로 운전

### 체험·축제 정보

- 북극곰 수영대회(매년 1월말)

### 주변 관광지

범어사, 동래온천 및 죽탕체험, 남포동 영화거리, 자갈치 시장, 태종대, 광안리, 오륙도, 송도해수욕장, 을숙도 철새, 다대포 해수욕장과 물운대 낙조 등.

3

매기 당상'의 김해 김씨 할매 신화에 푸른 뱀이 등장한 데서 유래되었다.

## 달맞이 동산

대변항은 부산과 경주 감포 사이에 있는 가장 청사포를 비껴 와우산 중턱에 다다르면 달맞이 동산과 만난다. 대변항에서 달맞이 공원까지는 약 20km 남짓이며 드라이브 코스는 8km에 이른다. 달맞이 길은 송정해수욕장까지 15번이나 굽어진다고 해서 15곡도(曲道)라고도 한다.

송림이 우거진 이 고개에서 바라보는 월출(月出)은 대한팔경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요새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맞이 축제를 한다. 해월정이라는 정자와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만들어진 조각공

원이 있다. 그리고 야외 음악당이 가까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길목에는 전원카페 등이 여럿 있다.

고갯길을 내려 해운대로 오는 길목에 잠시 미포(尾浦)항을 둘러도 좋다. 방파제 옆으로 난 앙증스러운 붉은 등대, 바다 멀리 오륙도도 잡힌다. 미포마을이 형성된 때는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하는데 '미늘', '미암'으로도 불리었다. 풍수지리상 소가 누워있는 형상으로 알려진 와우산의 소꼬리 부분인 해안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미포라는 지명이 붙었다. 연근해 어항, 관광유람선 선착장과 생선회센터가 밀집되어 있다.

이어 해운대와 동백섬, 광안리 해수욕장을 연계하면 멋진 겨울 해안드라이브 코스가 된다. 